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⑩ 여래수랑품 제16

진리의 나타남

이 '16장 여래수랑품'에서 부처님께서 구도자 마이트래야(彌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극히 깊고 요묘한 여래의 본체(秘密)와 자유자재(神通)한 능력(力)을 들어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이란 생신(生身)의 석가모니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구원실성(久遠實成)의 부처님, 다시 말해 이름 붙일 수 없고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는(名不得 相不得) 진리를 임시로 이름지어 부처님이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라는 말도 가명(假名), 즉 일시적인 이름이다. 왜냐하면 부처님도 실체가 없는 공성(空性), 즉 변해 가는 존재(法空)이기 때문이다.

앞에 설명했듯이 법이라는 말 자체가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부처님의 본성은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바로 '비밀(秘密)'이라는 말이다. 천태는 비(秘)란 1신 즉 3신(一身即三身: 法身·報身·應身)인 것, 밀(密)이란 3신 즉 1신(三身即一身)인 것, 다시 말해 1신과 3신의 상즉(相即)을 '비밀'이라 해석하여 <법화문구>에서 이를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던 것을 '비'라 하고, 오직 부처

석가불은 적불·화신불·응신불  
세상 모든 현상은 본불의 화현

님만이 아시는 것을 '밀'이다"라고 설명한다. 또 삼론종의 길장도 그의 저서 <법화소 권10>에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설한 바가 없는 것을 '비'라 하고 그 감춰져 온 법이 매우 깊기 때문에 '밀'이라 한다"고 하여 천태의 수명이 장원함을 짧게 나타낸 것이 '신통'이라 하며, 자은대사는 화신이 증생으로 응해서 나타나는 작용이 '신통'이라고 해석한다. 길장은 제외하고는 모두 불신론(佛身論)에 의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밀 신통지력'의 원인은 가지력(加持力) 또는 위신력(威神力), 즉 신비한 힘이라는 뜻이다. '이설연등불등(我說燃燈佛等)'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크다. 연등불이란 과거세에 출현하여 석존에게 상불의 예언(授記)을 하신 부처님 이신대 정광(淨光) 또는 보광(普光)이라 번역된다. '제1장 서품'에서는 묘광(妙光)에게 교화되어 차

레 차례로 성불한 일월명등불(日月燈明佛)의 여덟 왕자 중 최후에 성불한 분이 연등불이라고 설하고 있지만 이 연등불과 석존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 '이설연등불등'이라는 말은 쉽게 지나칠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예로부터 두 가지 해석이 있어 왔다. 그 첫번째는 '내(釋迦佛)'가 연등불 등이라 설해 왔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설, 즉 연등불 등의 부처님들은 본불인 석존이 증생 교화를 위해 방편으로 나타난 응현불(應現佛)이며 본래는 석존과 동체(同體)라고 하는 설이다. 천태 이전의 해석과 자은대사의 <현전> 등, 이 설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두번째의 해석은 연등불과 석가는 별도의 부처님이라는 설이다. 이 해석은 천태의 화신(化身)에 천태는 앞의 해석을 비판하여 배척하고, <법화경> 이전의 경에서는 석가불은 연등불 아래서 수행하고 연등불로부터 성불의 수기를 받았다고 설해져 있으나 그것은 모두 방편으로서 실설(實說)은 아니며 종래의 석가(迹)에 대한 인식을 개척시키기 위한 것이 <법화경>이 바라는 글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경을 해석하면 '이설연등불등'의 뜻은

절 옆에는 작은 부도 밭이 있고 그 앞에 절 내력을 담은 안내판이 있다. 방계산 자락에 이 절이 들어선 것은 1928년이다. 당시에는 행정 구역상 광산군이였다. 군내에 절이 없어 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지은 절이 관음도량 법흥사다. 창건 불사는 손영월 스님이 주도했고 1949년에 서국산 스님이 중창했다. 화엄종 소속이다.

법흥사는 다시 중창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낮은 법당에서는 비가 세고 요사채는 기울어 모든 전각을 헐고 새로 짓는 작지 않은 불사다. 이미 대웅전과 요사채는 이미 마무리 단계다. 대웅전 좌측의 낮은 요사채를 뜯어내고 강당을 짓고 정면에 사천왕문을 세우고 그 2층을 종루(鐘樓)로 장엄하면 불사는 일단락된다.

이 불사는 올해 83세의 노스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지운(池菴) 스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법흥사 중창 불사를 원만히 회향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원력을 세우고 매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믿어야 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因果)란 게 뭐냐? 인을 바로 하면, 과도 바른 법 아닌가. 이 세상에서 팔순이 넘도록 살았고 부처님 은혜를 크게 입었으니 창건은 못해도 낮은 절 새로 짓는 불사는 하고 가자. 내 발원이 있고 평생 병원 신세라고는 한 번도 저 본 일이 없는 몸이 있으니 하루 일하면 하루만큼 불사는 진행되는 거야. 거창하게 소문내고 요란하게 화주 받으려 질 짓는 것 보다는 이렇게 조용히 절 짓는 일을 즐기는 것도 좋은 수행 방편이라 생각해 주게나."

지운 스님은 기자의 방문을 한사코 거절했다. "공부도 잘 하지 못했고 나이 들어 말도 잘 못하니 찾아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법흥사를 찾아갔을 때, 스님은 "시내 좀 나갔다가 방금 돌아왔는데 웬케도 찾아왔군"하면서 방금 웃어보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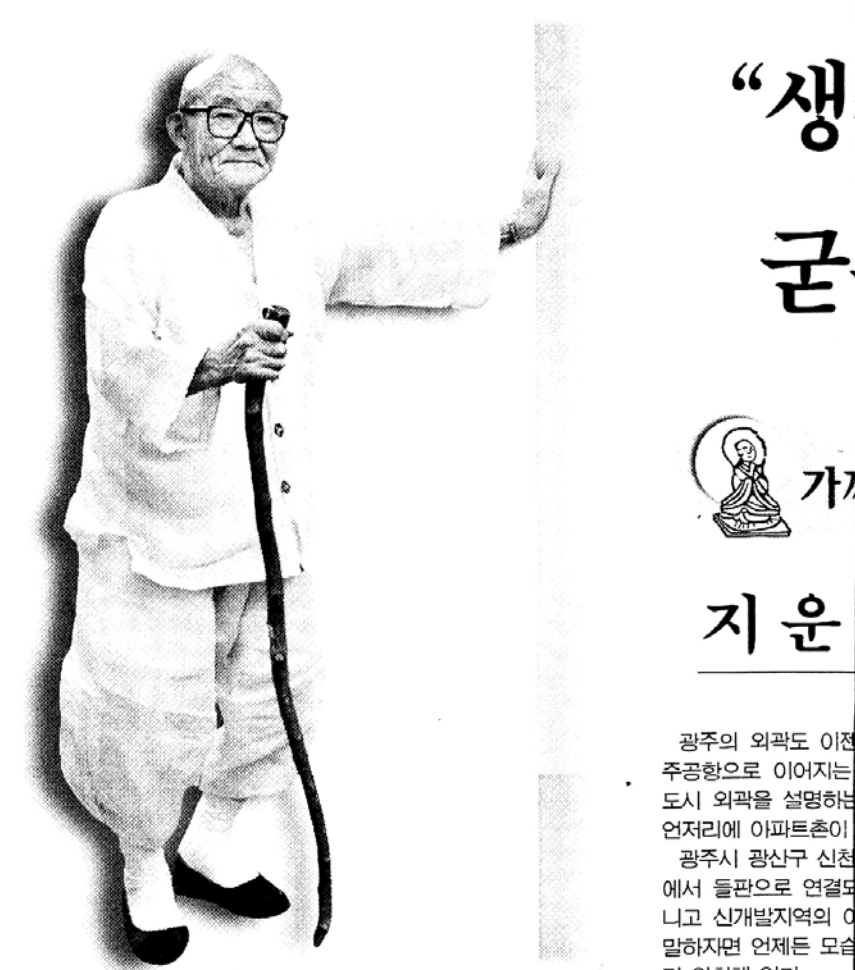
지팡이를 들고 있는 스님의 모습은 아무래도 어색했다. 노스님들에게 지팡이가 몸의 일부처럼 아주 잘 어울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운스님에게는 아무리 봐도 지팡이가 몸의 일부라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이유가 있었다.

"난 원래 이런 지팡이에 몸을 의지할 정도는 아니었어. 건강 하나는 항상 자신 있었지. 그런데 몇 달 전에 허리를 다쳐서 이 모양이 아닌가. 그날도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리어카에 흙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 아, 그런데 저쪽 경사로에서 리어카가 기우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서 뭐냐. 병원에 가서 X레이 촬영을 해 보니 크게 다친 것은 아닌데 이렇게 허리를 쓰기가 불편하고 걸기도 힘들어서 지팡이에 몸을 맡기게 됐어."

하지만 스님은 중창불사 원만 회향을 위한 300일 기도는 매일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고 있다. 300일이 지나도 불사가 회향 되어도 스님은 기도를 계속 할 생각이다. 300일이라는 시간의 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시간 맞춰서 무슨 기념식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서 염원하고 늘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 불사를 하려고 마음을 내고 일을 하다 보니 불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그 방편으로 300일 기도를 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그 시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불사를 하고 있는 것도 기도일 수 있으니 말이지."

스님은 살아 있는 자체가 절실한 기도라는 것을 강조했다. 사람은 생각이 움직이고 있는 한 뭔가를 바라고 설계한다. 그 생각의 틈새에 끼어 있는 염원을 혹은 계획들이 모두가 다 기도라는 것을 스님은 전생이라는 체험을 통해 알았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지금 생



지운스님은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현 무엇이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생  
균  
가  
지  
운

광주의 외곽도 이전 주공항으로 이어지는 도시 외곽을 설명하는 언저리에 아파트촌이 광주시 광산구 신천에서 들관으로 연결되고 신개발지역의 이 말하지만 언젠가 모습 가 위치해 있다.

지운스님?

지운(池菴)은 스님 해리에서 출생, 15세를 거두어 머리 깎아 사 불교전문강원에서 방과 6.25 전쟁을 겪

오직 일념으로 간절하면

因果 바르게 다스릴수 있어

한생각 믿음의 자리로 집중을

각하고 있는 그것이 기도라 믿어라. 모든 생각을 기도 하듯 간절히 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기도 라는 것은 형식을 좇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머금고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스님은 출가 분사인 대둔사 대홍사에서 알게 되었다며 오래 전의 일을 회고했다.

전장의 광풍이 대둔사에도 불어 왔다. 대둔산은 이미 유격대빨치산들이 출몰하고 있었고 토벌을 위한 집전도 벌어져 그야말로 살벌한 시절이었다. 사중의 스님들이 절을 두고 피란을 가는 와중에 스님도 인근 마을에 방을 얻었다. 은사인 봉명(鳳鳴)스님을 모시려 갔는데 "나이 팔순이 넘은 중이 피란을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죽어도 부처님 도량에서 죽어야지"하며 안 떠나겠다고 했다. "죽음을 두려워해 마을로 내려간다고 그곳에는 죽음이 없느냐"는 은사 스님의 말에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노스님을 모시고 절에

남 남아 있었다. 대둔사에는 봉명 스님 말고도 다른 노스님이 남았고 나이 든 공양주 보살들이 남게 되었다. "그렇게 무서운 시절을 맞으니 늘 마음속이 허전하고 두려운 생각도 자주 들게 되더군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이 도우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기도로 바뀌어, 늘 부처님과 보살님들, 신장님들이 나를 듣는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무슨 생각을 해도 그 믿음의 생각을 먼저 했지. 그래서 전쟁을 겪으면서도 죽지 않았는지 몰라. 두 눈으로 그 험한 일들을 다 보아야 했지만 마음은 늘 든든했어.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지."

바야흐로 대둔사도 낮에는 경찰이 차지하고 밤에는 산사람들이 출몰하는 위험지역이 되었던 즈음이었다. 절 아래 마을의 젊은이들과 스님은 청년단을 조직해 야경도 서고 면소제지의 지서와 비상연락망도

전국의 모든 불자 여러분께 알리는 메시지

- 1.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온지 1700년! 그동안 교황(경전)과 참선(특조선,간화선,조사선)이 주류가 되어 호국불교로서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마침내 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선인(仙人)에게 佛法을 전수받아 수행하셨던 - 「이근원통법문(耳根圓通法門)」이 설한 히 밀라에서 우리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모든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수많은 이라하고 도인들이 출현한다는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법화경의 서품과 비유품에 예언되어 있음)
- 2. 과거칠불과 아미타불, 연등불,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의 심대제자와 심육아라한, 오백아라한, 천이백아라한, 라후라, 용수보살, 밀라라빠, 달마대사, 6조혜능대사 등의 모든 불보살과 아라한들이 화두(話頭)가 아닌 오직 유일무이한 해탈법문인 「이근원통법문」을 전수받아 수행하여 완벽한 깨달음(확찰대오)을 성취하시고 아득다라삼삼보리를 증득하였습니다.
- 3. 「능엄경」과 「아미타경」, 「금강경」, 「법화경」을 비롯한 49년동안 설하신 팔만사천법문이 모두 다 한결같이 이근원통법문 이 해탈하고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수승한 法門임을 천천히 알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이 바로 「이근원통법문」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근원통법문」에入門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수 없는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로써 팔만사천 법문을 설하셨던 것입니다.
- 4. 「능엄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직 「이근원통법문」 만이 모든 법문중에서 최고의 법문이며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법문이고, 과거세의 모든 여래(來者)가 수행했던 법문이다. 또한 이것은 성불하고자 하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보살마하살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법문이다. 아득한 과거세에 관세음보살도 이 법문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었으나 또한 그러하다. 이 법문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으며 사방삼세불도 모두 이 법문을 수행해서 마침내 아득다라삼삼보리를 증득하였다. 모든 수행법은 다 임시방편일 뿐 영원한 법문은 아니다. 유일하게 「이근원통법문」 만이 영원하고 가장 궁극적이면서 확실한 수행법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 5. 「이근원통법문」을 직접 수행해보면 여러분도 석가모니불의 말씀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은 49년동안 오직 이 법문만을 천천히 했으며, 중생들에게 성불하려면 반드시 「이근원통법문」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석가모니불이 이 법을 설했을 때 5천명의 대중들이 이전에 들어보지도 배워보지도 못한 생소한 법문이라고 의심하고 비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 6. 지금 이 세상에는 이렇나 스승(스님)들이 너무나 많은데, 「능엄경」에서 석가모니불은 "팔만사대가 되면 자칭 불보살이나 큰승(큰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생을 속일 것이다. 사람들을 불보살의 경지와 해탈의 세계로 인도하지 않고 기복신앙, 의식, 경전, 형식에 집착하게 하고 오계(五戒)도 지키지 않고 술, 고기, 마약(담배)을 먹는 성직자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 7. 여러분을 해탈시켜 줄 수 있는 참된 스승을 찾으십시오. 석가모니불의 법맥이 28조 달마대사(450-536?)에 의하여 중국으로 들어가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혜능대사(638-713)까지 전해졌으나 혜능은 법을 전할 법기(法器)가 없어 더 이상 전하지 않았습니다.
- 8. 「이근원통법문」을 「금강법문(金剛法門)」, 「법화법문(法華法門)」이라고 하는데, 모든 여래의 비밀하고 중요한 법장(法藏)으로서 너무나 깊고 오묘하여 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렵고 반드시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복덕이 많은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법화경중)
- 9. 「이근원통법문」은 만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고, 입문하기도 어렵고, 끝까지 수행하기도 어렵습니다.(법화경중)

- 1. 「이근원통법문」은 성스러운 입문식(入門式)을 통하여 전수해 주는데 무료로 행해집니다. 입문식을 점안식(點眼式), 마정수기 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고도 합니다. 점안식은 본래 불상이나 탱화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천존하는 부처님이 살아 있는 사람의 불인(佛眼)을 열어주는 의식을 뜻합니다.
  - 2. 「이근원통법문」에 입문하면 누구든지 이번 생애에 살아 있을 때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원과, 아라한도, 해탈, 보살, 성불을 증득할 수 있으며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쉬운 법문입니다.
  - 3. 불법(佛法)은 불교(佛敎:교리,경전)가 아니라 무형무상(無形無相)으로 일종의 힘이다. 반드시 현존(現存)하는 부처님으로부터 점안식을 통하여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법(法)을 전수받아야만 해탈, 성불할 수 있다.
  - 4. 설산(山)하말라야(하)거칠불,석가모니불 법맥은 해동 대한민국의 살아있다.
  - 5. 해탈, 성불은 살아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죽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 6. 「이근원통법문」은 일세해탈법문(一世解脫法門)이며 정법안장(正法眼藏), 열반묘심(涅槃妙心), 마정수기(魔頂授記),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이다.
- \* 「능엄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법법 시대에 고기력은 출가승(出家僧)들이 비록 마음이 열려 심매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들은 모두 대니찰(大羅刹:귀신)로서 고기력은 과보로 임종후에 반드시 생사고해(生受苦海)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나의 재자가 아니다. 그들은 삼계를 벗어날 수 없다."

오키나와 해양심층탈염음료  
「신카이」 한국상륙  
한국·일본 매스컴들이 주목하는 바로 그 해양심층탈염음료가 「신카이」 브랜드로 한국시장에 첫선을 보입니다  
미네랄음료 「신카이」는 해양심층탈염음료 중 가장 뛰어난 건강음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카이」(해양심층탈염음료)는 태양이 미치지 않는 수심 800m 깊이 북극에서 곧바로 내려오는 오키나와 바다에서 서양 속의 오아시스라고 불리우는 산호초의 퇴적지층을 통과하고, 현재 오염도 되지않고 맑고 깨끗하며, 살아있는 수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현재 생산되고 있는 해양심층탈염음료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건강 음료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건강음료 피부미용에...  
1일 200cc의 용으로 2-3잔을 꾸준히 매일 마시고, 미역에 갈아넣어 면역력 향상을 도와줍니다.  
건강음료에...  
피부를 맑게 할때 15%정도 신기미 사용하시고, 화장에도 신기미만 또는 미백을 사용하십시오. 조리시 물로만 마셔도 딱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강음료로...  
냉차 커피 등에 사용하십시오. 특히, 위스키 등 혼합물로 사용하시면 숙취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SBS-TV 「대국민 약속」 \* 좋은 생명이야 \* 방영  
-「무한한 청정자연, 해양심층수 2001 10 12  
-「심층수의 기적 일본 열도 물기다, 1번  
-「심층수의 기적 일본 열도 물기다, 1번  
-「심층수의 기적 일본 열도 물기다, 2번  
-「심층수의 기적 일본 열도 물기다, 2번  
KBS-TV \* 「일요스페셜」 \* 방영  
-「신비의 물 해양심층수」, 연 2002 4 28  
제품구입 및 대리점 상담문의 02-795-1673